

큰 배움터 ‘대학’, 인생의 서재

전문가칼럼-지식의 전달

이택광 교수

외국어대학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얼마 전에 타개한 이탈리아 철학자 이자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는 세계적인 장서가로 유명하다. 그의 서재를 보여주는 동영상도 유튜브에 소개되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카메라가 미로처럼 첩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서가를 따라 들어가는 장면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엄청난 책을 소유하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했지만, 정작 에코는 책 자체나 지식에 대한 물신주의를 항상 경계하는 학자이기도 했다.

웬만큼 책을 소장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자신의 서재를 방문한 이들로부터 꼭 받는 질문이 있다. 바로 이 많은 책들을 다 읽었는지 열에 아홉은 물어보는 것이다. 에코 역시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도 어디선가 비슷한 말을 했는데, 집에 찾아오는 방문객들 중에 서가에 있는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묻는 이들에게 항상 “책은 전부 읽으라고 소장하는 것이 아니다”는 대답을 한다고 했다.

지식은 도로에 불과 오히려 기호가 중요하다

같은 질문에 대한 에코의 대답은 “읽지 않은 책을 소장하는 것이 서재”라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보다 적절한 대답은 없는 것 같다.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굳이 서재에 소장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읽었지만 소장하고 싶은 책이란 대체로 그 내용을 두고 두고 꺼내보고 싶은 경우일 테다. 이 경우는 그 책의 내용이 심오하거나 귀감 삼을 만해서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그 책의 내용을 환하게 알 수 있다면 굳이 소장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에코의 대답은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에코라는 학자가 생전에 추구



한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절묘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에코는 지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식은 언어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체계가 다르면 전혀 다른 내용을 전달한다.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이라기보다 기호(sign)였던 것이다. 그에게 지식은 도구적인 것에 불과했다. 에코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소설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에코에게 소설은 그냥 취미생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유력한 소통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논문이 아니라 소설을 쓰는 기호학자. 이른바 학문에 대한 규범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이라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이지만, 에코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보다도 더 확실한 지적 작업은 없었을 것이리라.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은 이렇게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제도와 체계에 도전한다. 물론 에코의 실험을 두고 성공인지

아닌지 가능해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 시도 자체가 가진 의미는 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에코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반성해볼 만한 것들이 있다. 우리는 종종 지식의 습득을 삶의 전부인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에코의 생각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서재에 있는 책을 모두 읽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존재와 위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말하자면, 어떤 지식도 개인이 완전하게 소유할 수 없다는 지적은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공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공부의 의미 필요

내용을 암기하고, 그 암기의 정도로 점수를 매겨서 줄 세우기를 시키는 우리의 근대교육은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근대교육의 경직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부

의 의미’가 절실한 시점이다. 제대로 된 ‘공부의 의미’를 세우기 위한 근대교육의 제도를 재편하는 것도 그래서 시급하게 필요하다. 오랜 역사를 가진 외국의 대학들이 앞 다투어서 새로운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한 혁신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혁신안들은 궁극적으로 ‘취업’이라는 먹고사니즘을 겨냥한 것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먹고사니즘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에코의 서재처럼 대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는 답은 대학 밖에도 차고 넘치지 않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을 궁구하는 장소가 바로 ‘큰 배움터’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대학을 인생의 서재로 삼아서 알지 못하는 답을 구하려는 노력들을 우리 대학에서 점점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참여마당

고아라

(국어국문학 2015)



밤하늘이 매력적인 이유

별은 참 오묘하다. 황석영 작가의 <개밥바라기 별>의 소재가 된 금성은 새벽에 뜨면 샛별, 초저녁에 뜨면 ‘개밥바라기 별’이라 불린다. 시간에 따라 금성이 다른 이름을 갖는 것처럼, 별은 어떤 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어떤 이에게 별빛은 그리운 어머니의 눈빛으로, 또 다른 이에게 별빛은 무거운 현실의 위로로 다가온다. 그리고 나에게 별빛은, 따스하게 내 곁을 지켜준 오랜 친구와 닮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 손을 잡고 천문과학관을 찾았던 적이 있다. 밤이 깊어지자 선생님께서는 밖에 나가 별자리를 직접 찾아보라고 하셨다.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가 별자리를 찾았다. 황홀한 밤하늘 가운데 나란히 줄지어 있는 별 세 개를 발견했다. 내가 지금까지도 자신 있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 오리온자리의 허리띠 부분이었다. 아무렇게나 흠뻑려져 있는 줄로만 알았던 별들 중에 처음으로 별자리를 찾았던 그 어린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창문 밖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다른 이들에 비해 미미하지만 꾸준히 내 빛을 내면 언젠간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당시 나는 소심한 성격 탓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려했다.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었다. 나는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내 소극적인 모습을 질책하곤 했다. 가슴이 답답해질 때마다 나는 습관처럼 집 옥상에 올라갔다.

옥상 위에 담요 하나 깔고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밝은 별들이 가장 먼저 눈을 맞춰왔다. 하지만 나는 밤하늘과 더 끈질기게 눈을 맞췄다. 그러면 내 끈질긴 시선에 지쳐 살짝 고개를 내미는 아기별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아기별을 찾다보면 과학시간에 배웠던 몇백 광년이라는 거리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였다. 기세등등한 저 별들 가운데서 콧웃하게 자기 빛을 내는 아기별을 보며 나는 다시금 위로를 받았다. ‘결코 아기별들은 빛이 없는 게 아니다. 단지 밝은 별들 사이에 묻혀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비록 지금은 내가 다른 이들에 비해 미미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내 빛을 내면 된다. 아기별을 끈질기게 찾아내는 나처럼, 언젠가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밤하늘처럼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 부유한 삶, 안정적인 직업 등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제한적이다. 모두 제각기 다른 모양새를 갖고 있고, 그 가치가 모두 다름에도 말이다. 내가 밤하늘을 사랑한 이유는 슬쩍 봐도 보이는 화려한 별들이 아닌, 오랫동안 애를 써야 비로소 보이는 아기별들 때문이었다.

별들이 모두다 똑같이 반짝거렸다면, 나는 아마 밤하늘에 어떠한 매력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밝은 별을 따라 무리하게 빛을 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빛을 꾸준히 낼 때, 또 모두가 그 사람 그 자체를 따스한 눈길로 바라봐줄 때, 세상도 밤하늘처럼 매력적으로 빛나지 않을까.

▶1면에서 이어짐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게 대도시는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었다면, 데이비드 하비에게 대도시의 길은 도시의 심장으로 이르는 詩였다. 대도시가 사람들을 둔감한 군중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도시인들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준다고도 한다. 대도시의 삶이 감정 또한 화폐처럼 계산하도록 만든다면,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해관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화폐를 매개로 모든 것을 등가치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도시의 물화된 삶은 군중 속의 고독을 안겨준다.

다른 한편으로 대도시의 익명성은 자유로움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과도한 친밀성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변화에 둔감해서 보수적인 시골에 비해 대도시는 자유롭고 진보적인 태도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가 비대해지고 인구가 밀집되면, 우리의 감성구조 또한 변하게 된다. 게오르그 짐멜은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전형적인 심리상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서, 어떤 생활양식과 어떤 미적 가치를 품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문제와 대도시의 형 성과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를 신경과민으로 분석한다. 스트레스가 항시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과도한 각성의 상태가 신경과민이다. 그것은 내, 외부적인 자극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혹은 끊임없이 변하는 데서 말미암은 충격의 효과다. 대도시의 현란한 변화속도로 인해 인체의 생리적, 인지적, 행동도 변화한다. 감각들이 빠르게 변하는 세계의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신경각성 기어를 고속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짐멜은 이런 신경과민과 동전의 양면인 둔감함을 동시에 포착한다. 과도한 신경과민으로 오히려 사람들은 지극히 둔감해진다. 대도시에서의 삶은 복잡하고 피로하고 경쟁적이다.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무심해진다. 아파트 옆 집 독거노인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나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눈길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진다. 미친 듯이 경쟁하는 대도시의 삶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제 옆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하지만 데이비드 하비가 말하듯,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서, 어떤 생활양식과 어떤 미적 가치를 품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문제와 대도시의 형성과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도시를 정치적인 아고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공간적 불평등이 가시화되는 ‘슬럼행성’으로 만들어버릴지는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집단적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교수지원 프로그램

- 경희 OCW(Open CourseWare) 모집 안내
 - 신청자격 : 본교 전임교원
 - 지원대상 : 2016학년도 1학기 학부 개설 강좌(국제캠퍼스)
 - 신청기한 : 2016년 3월 7일(금)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online@khu.ac.kr)으로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ctl.khu.ac.kr 공지사항

학생지원 프로그램

- 스터디그룹
 - 신청자격 : 국제캠퍼스 재학중인 학부생
 - 팀 구성 : 5인 이상의 학부생으로 구성
 - 전공기반형
- 자유선택형 : 전공, 학년 상관없이 관심 분야 주제 선정
- 신청일시 : 2016년 3월 8일(화) 11:00 ~ 15:00 ※ 단 하루 4시간만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learning@khu.ac.kr)으로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ctl.khu.ac.kr 공지사항

- Learning Fellow
 - 신청자격 : 평점 3.50이상을 받은 3~4학년 재학생
 - 신청기한 : 2016년 3월 11일(금)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성적 증명서와 함께 교수학습지원센터(학생회관111호) 방문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ctl.khu.ac.kr 공지사항
- Learning Step-up
 - 신청자격

유형	튜터	튜티
기초 학습	기초 학습능력(미분적분학, 공학수학 등)과 관련 교과목에서 A- 이상을 받은 학부생 또는 관련 전공 대학원생	2016-1학기 기초 학습능력(미분적분학, 공학수학 등)과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전공 학습	튜티와 동일 전공 학생으로 평점평점 3.5 이상을 받은 학부생 또는 관련 전공 대학원생	직전 학기 평점평점 2.0 이하를 받은 학부생

- 팀 구성 방식

유형	학습 주제	팀 구성 방식
기초	기초 학습 관련 교과목 내용	튜티는 동일 교과목 수강생으로 구성
전공	전공 학습과 관련 내용	튜티 - 튜터 모두 동일 전공 학생으로 구성

- 신청기한 : 2016년 3월 11일(금)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learning@khu.ac.kr)으로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ctl.khu.ac.kr 공지사항

국제캠퍼스 교수학습지원센터